



코로나19로 변화된 캄보디아 건강기능식품시장

캄보디아 건강기능식품시장 규모 및 수입 동향

최근 캄보디아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유기농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비타민을 포함한 캄보디아 건강기능식품시장은 약 5,000만 달러 규모로 2015년 대비 약 40% 증가하였다. 건강기능식품시장 중 비타민 및 건강 보충제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방 및 전통제품은 약 29% 정도이다.

캄보디아의 건강기능식품 수입국 상위 3개 국가는 싱가포르, 미국, 중국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한국제품 또한 수입액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소폭 감소하였다.

캄보디아 건강기능식품 수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27,482	36,875	44,496	63,330	65,093
1	싱가포르	14,352	18,825	19,985	32,482	30,075
2	미국	3,707	6,847	10,134	12,940	15,745
3	중국	142	367	1,008	1,981	3,731
4	태국	2,525	3,179	4,423	4,117	3,253
5	한국	257	327	954	2,707	2,063

자료 ITC Trade Map, HS CODE 210690 기준

캄보디아 대표 건강기능식품: 제비집 음료

제비집은 오랫동안 피부미용과 항암, 폐기능 활성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다. 제비집은 특히 임산부와 고령층이 선호하는 건강식품이다. 제비집은 바다제비가 분비한 타액과 깃털로 만든 동지이며 과거에는 천연 상태에서 채집했지만 지금은 '제비 아파트'라고 부르는 인공 구조물을 통해 채취한다.

제비 아파트는 시하누크빌, 코콩, 깽, 캄푹 등 주로 해안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연간 1,500kg의 제비집을 수확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30%의 경우 국내 소비용으로 나머지는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제비집을 활용하여 음료는 주로 중산층 이상이 소비한다.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중장년층이 선호하여 명절이나 감사의 뜻을 전할 때 선물용으로 소비된다.



스카치 로얄 프리미엄 골든 제비집
(Scotch Royale premium golden bird nest)
용량 45ml
가격 \$2.5

리쥬니플렉스 제비집과 자일리톨
(Rejuniplex bird's nest with xylitol)
용량 42ml
가격 \$3.5



코노지 제비집 (Konoji Bird's Nest)
용량 250ml
가격 \$3.5



벨 제비집
(Bell bird's nest)
용량 110ml
가격 \$4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식용 콜라겐 피부 및 미용에 관한 여성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식용 콜라겐에 대한 인기가 높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콜라겐의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라 중산층과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 헬스&뷰티 스토어인 가디언(Gardian)과 약국, 피부 클리닉에서는 파우더, 캡슐, 액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스피루리나 스피루리나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조류(藻類)로 세포벽이 얇은 다세포 생물이다. 단백질과 포함된 인체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 차세대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건강식품으로 소개하거나 나사(NASA)에서 슈퍼푸드로 꼽기도 했다. 스피루리나 제품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직접 생산해 유통되며, 주로 파우더와 알약 형태로 판매된다. 현지 시장과 페이스북으로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콜라플러스 콜라겐 음료
(Colla-plus Collagen drink)

키노히미트수 콜라겐 음료
(Kinohimitsu Collagen drink)



스피루리맥스 스피루리나 알약
(Spirulimax Tablets)



스피루리맥스 스피루리나 가루
(Spirulimax sprinkles)





쇼핑몰 내 한국 홍삼 브랜드 매장



브랜드 매장 내 판매되는 한국 홍삼 제품

자료 aT 캄보디아사무소 자체 조사

한국의 대표 건강기능식품 인삼 · 홍삼 제품

한국의 인삼 · 홍삼 제품의 경우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 이상에게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다. 다만 액체나 젤, 알약 형태의 제품이 익숙하지 않아 원물의 모습을 가진 정과 형태의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프놈펜 시내에는 홍삼 제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브랜드 매장들도 운영되고 있다.

다만, 對캄보디아 한국 인삼 · 홍삼 제품의 수출 동향은 현재까지 2019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인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로 가격대가 높은 홍삼 제품의 선물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또한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홍삼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 구매를 꺼린다는 의견도 있다.

건강기능식품 수출 시 주의사항

캄보디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입 시, 까다롭게 검사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수출 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부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설명서와 제조설명서, 원료관리설명서 등 8~9개의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총판이나 단독 대리점으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비공식통관을 이용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후 단속 대상이 되어 거래의 벌금과 제품 압수의 위험이 있다.

對캄보디아 한국 인삼 · 홍삼 제품의 수출 동향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삼류	281,475	300,593	138,998	563,557	285,723

자료 KATI, AG CODE 155 기준

작성자 캄보디아사무소 김선경

Key Point

캄보디아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존의 인삼 · 홍삼 제품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식용 콜라겐, 스피루리나 등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식품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제품군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홍보 콘텐츠 제작 시, 해당 제품이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는 것이 시장 진출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현지 유통매장에 수월하게 납품하기 위해서는 TV광고를 할 정도의 여력을 갖추길 권고한다. TV광고의 경우 제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다는 점을 점주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 SNS 광고보다 유통매장 납품에 도움이 된다.